

지역 대학의 장기현장실습(Co-op)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센트럴워싱턴대학교를 사례로 -

이종호** · 채민수*** · 장후은****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ducation in a Regional Public University : The Case of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USA*

Lee, Jong-Ho** · Chae, Min-Soo*** · Jang, Hoo-Eun****

요약 : 최근 들어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 기업친화형 우수 인재 확보,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Co-op 교육(장기현장실습) 중심의 산학협력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공 연계성과 취업연계성이 낮은 단기 인턴십 위주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등 장기현장실습 중심의 산학협력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교육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북미와 유럽의 대학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센트럴워싱턴대학교(CWU)를 사례로 하여 Co-op 교육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산학협력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례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WU 학생들은 주로 좁게는 카운티 내, 넓게는 워싱턴 주 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습을 했던 기관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실습의 지역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WU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전공연계성이 높고,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계열의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습 참여 학생의 자격조건은 엄격한 대신, 전공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또한 전공연계성, 취업연계성, 지역연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대학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Co-op 교육, 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인턴십, 산학협력, 센트럴워싱턴대학교

Abstract :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ve education as an important way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s for improving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cruiting talented human resource, and promoting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s. In this study, we recognize that the paradigm of professional practice have to be changed from internship to Co-operative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education in a regional public university through a case study of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CWU), USA.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practice program of CWU is centered upon Co-operative education and has a high local and regional connectivity in terms of location of institutions that students work for professional practices. Second, the professional practice program of CWU has a high connectivity between majors and jobs, and is characterized by an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social sciences, arts and education. Third, the qualifications of Co-operative education are strict, but programs of Co-operative education are flexibly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s and colleges. We emphasize that universities in Korea need to focus upon the employment connectivity, the major connectivity, the local and regional connectivity. Therefore, when attempting to introduce Co-operative education. In addition,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Co-operative education should be flexible.

Key Words : Co-operative education, professional practice, internship,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임 (NRF-2014S1A5B8A02074068)

**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산학협력정책연구소 부소장(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Vice-Director,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jhl@gnu.ac.kr)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cms8646@naver.com)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jhe@gnu.ac.kr)

1. 서론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으로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는 197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업에서의 현장실습 이수를 법제화하면서 등장하였으며, 산업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의무사항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1997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기초한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과는 상이한 것이며, 의무사항 또한 아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해서 각 대학은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장실습은 학생에게 진로 파악과 졸업 후 조기취업을, 기업에게 맞춤형 인재의 사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장려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장기현장실습은 전공 관련 실무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대학과 학생, 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많은 대학이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평가 등에 반영되면서 지난 3년간 외형적으로는 2배 이상 성장하였다. 2013년 현재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135,701명으로 2012년 대비 22.3%가 증가했으며, 참여 기업 수도 77,177개사로 2012년 대비 2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장실습을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학점 취득과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단기현장실습을 선호하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사업) 참여 5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0년~2012년까지 3년 동안의 현장실습을 분석한 결과, 4주~8주 정도의 단기 현장실습이 지배적이었으며, 장기현장실습으로 분류할 수 있는 12주 이상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승 외, 2014). 또한, 대학들은 현장실습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실적 쌓기의 수단

로 접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학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무분별한 현장실습 운영으로 인해 단순 인력활용, 노동착취 등의 근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의 의의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¹⁾. 운영지침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현장실습의 정의, 기간, 운영기준, 실습지원비, 운영절차, 관리주체, 학사관리 등의 제 측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현장실습의 정상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운영지침 제정 외에도 장기현장실습의 제도적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학사제도 개편을 비롯한 대학과 실습기관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 및 현장실습과 관련한 고용제도와 문화의 혁신 등 많은 분야에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와 대학의 운영 사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장기현장실습제도는 1906년 미국 신시내티대학에서 처음 도입한 것을 필두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장기현장실습을 전교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신시내티대학, 드렉셀대학, 노스이스턴대학, 캐나다의 워털루대학 등의 선진 사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나, 이들 대학들의 제도는 아직 장기현장실습의 맹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 대상이 된 미국 각 주를 대표하는 최상위권의 연구중심대학이거나 전교적 차원에서 장기현장실습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대학 사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워싱턴 주 키티타스 카운티 소재 주립대학인 센트럴워싱턴대학교(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이하 CWU)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WU는 1897년에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으로 설립되어 지역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높은 학부교육 중심 대학이다. CWU의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내 기업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각자 전공에 맞추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유용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센트럴위싱턴대학을 중심으로 장기현장실습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장기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4월 CWU를 방문하여 장기현장실습제도 조사와 함께 CWU Career Service의 센터장 및 스태프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CWU Career Service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3년간 장기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하여, 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014학년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863명에 대한 자료를 본 논문에 활용하였다.

2. 현장실습 관련 개념 및 연구동향

현장실습은 대학 재학 중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관련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역량으로 배양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은 현장실습, 현장학습, 장기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이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용어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대학에서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22조²⁾ 등의 법률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개념에 관한 용어를 검토하고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영미권에서 현장실습은 직업연수(work placement), 전문실습(professional practice) 등으로 표현된다(Collins Dictionaries, 2014). 직업연수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미국에서는 인턴십(internship)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문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특히, 조지아공대 및 신시내티대학 등과 같이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전문실습의 유형으로 장기현장실습(Co-operative education, 이하 Co-op)과 인턴십으로 구분하고 있다.

Co-op과 인턴십은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며, Co-op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3~12개월 동안 실습기관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의미하지만, 인턴십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실습을 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 실습이란 대체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습을 가지며,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할 경우에는 방과 후에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실습 형태로 규정한다(US News & World Report 2015년 3월 31일 기사). 미국의 대학 취업 및 인재개발 관계자들의 연합인 전미 대학 및 고용주 협회(<https://www.nacweb.org/knowledge/glossary.aspx>)에서도 Co-op과 인턴십에 대해 공통적으로 직무-전공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습기간과 학점 부여 및 급여 지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Co-op과 인턴십은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연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학생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습 기간 측면에서 다른 개념으로 정의된다(표 1). Co-op과 인턴십의 공통점은 실습의 결과로 학점이 부여된다는 점,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 체험을 한다는 점, 대체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 받으나 일부 무급 형태의 실습도 인정한다는 점 등에서 공

표 1. Co-op과 인턴십의 개념 구분

주요 요소	Co-op	인턴십
직무-전공 연계성	있음	있음
실습기간	최소 2개 학기 (8개월) 이상	1개 학기(4개월)
학점 부여	대부분의 경우에 학점 부여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급여 지급	유급	유급 또는 무급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2015)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통점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Co-op은 최소 2개 학기,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장기현장실습인 반면, 인턴십은 현장실습이 4개월의 한 학기 정도의 단기현장실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의 대학생들은 Co-op과 인턴십을 다른 관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턴십은 4년 안에 졸업하기를 원하거나 캠퍼스 생활을 누리면서 현장실습을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경우에 선택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Co-op은 장기간 근무경험을 쌓아 취업 연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Co-op과 인턴십을 포함하는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들은 특히, 취업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시기와 연구대상이 다르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현장실습이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Knouse *et al.*, 1999; Gault, Redington, and Schlager, 2000; Callanan and Benzing, 2004). Gault, Leach, and Duey(2010)은 현장실습과 취업률의 관계를 회귀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정규직 제안을 더 많이 받으며,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이나 운영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김영규, 2008). 국내의 연구 중 윤명희 외(2006)는 현장실습의 장단점에 대하여 학생, 교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순식(2015)는 LINC사업을 통해 실시한 충청지역 A대학교의 현장실습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황의택(2015)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장기현장실습생 출신 인력이 다른 채용 경로를 통해 입사한 인력과 비교할 때 인력채용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효과적인 반면, 형식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생, 대학,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현장실습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반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국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해외의 프로그램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Co-o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적 함의 도출이 시급하다.

3. 센트럴워싱턴대학의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황

미국 워싱턴 주 키티타스 카운티 엘렌스버그에 위치한 CWU는 1897년에 설립된 교육 중심의 주립 종합대학교이다. 150여개의 전공과정에서 10,000여명의 학부생과 500여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전체 재학생의 92%는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워싱턴 주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CWU에서는 졸업생의 취업경쟁력과 전공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72년부터 Co-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WU의 Co-op 프로그램은 학생들에

게 전공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여 학생의 능력을 더욱 전문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Co-op에 참여하고 있는 CWU 학생은 평균적으로 매년 700~800여명으로, 필수교육과정인 아닌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Co-op 참여 여부는 학생들의 의해 결정된다. 이에 Co-op을 졸업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조지아 공대나 신시내티 대학과는 달리, CWU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른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졸업이 늦어지게 된다.

CWU는 Co-o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2014). 우리나라의 인재개발원이나 취업지원센터에 해당하는 CWU Career Service에서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학생 지원 및 관리는 각 학과에 소속된 전공 자문교수들이 전담하고 있다. Career Service는 Co-op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여 학생의 진로·진학상담, 선·후배 멘토링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장과 9명의 코디네이터 가운데 Co-op 담당 직원은 2명이다(<http://www.cwu.edu/career/students>).

CWU에서는 Co-op의 질을 증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참여하는 학생들의 엄격한 자격사항을 요구한다. CWU의 Co-op 프로그램 학생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전일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징계이력이 없어야 하며, 누적 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1년 이상의 교

육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하며, 전과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최소 15학점이상을 CWU에서 이수하고 45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년에 따라 학점과 Co-op 실습시간이 차별적으로 부여된다. 기본적으로 학점은 1학점 당 40시간의 실습을 수행한 경우에 한해서 부여되며, 최대 20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에 1~5학점이 이수가능하며, 학점에 따라 10주 동안 총 40~200시간의 실습을 가져야 한다. 전공을 선택한 고학년 학생들은 전공 1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만 Co-op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한 학기에 1~12학점이 이수가능하다([http://www.cwu.edu/resources-reports/cwur-2-50-060-curriculum-rules-implementation#\(2\)](http://www.cwu.edu/resources-reports/cwur-2-50-060-curriculum-rules-implementation#(2))).

CWU의 Co-op 프로그램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표 2). 1단계에서 학생은 전공 자문교수와 상담을 시행한다. CWU에서는 준비단계로서 각 학과마다 Co-op 전공 자문교수들을 통하여 Co-op 계획 설계 및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은 실습 직전 학기에 Co-op 참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전공 자문교수와의 조율을 통해서 상담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에 실습을 나가기 이전에 자문교수와 주기적 상담을 통해 Co-op 계획을 설계하고, 자신의 전공에 맞는 실습기관을 탐색해야 한다. 이때 실습기관은 CWU의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실습기관에서 CWU Career Service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실습기관과의 면접 및 계약이 이

표 2. CWU의 Co-op 프로그램 절차

단 계	수 행 내 용
1단계	전공자문교수와의 상담
2단계	실습기관과의 면접 및 계약
3단계	Co-op 등록
4단계	Co-op 수행
5단계	평가

자료: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2014)를 바탕으로 작성

루어진다. 학생은 전공 자문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Co-op 실습기관을 정하고,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실습기관이 기업의 문화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학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학생은 면접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다수의 실습기관에 Co-op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접에 통과한 학생은 최종적으로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Co-op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학생과 실습기관 간의 Co-op 계약은 안정성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Co-op 등록을 위해 학생은 실습 시작 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습동의서 등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Career Service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4단계로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Co-op을 수행한다. 실습이 시작된 이후의 학생에 대한 관리 권한은 실습기관의 감독관에게 위임되며, 학생은 실습기관의 업무일정과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실습기관에서는 미국 연방 및 주 노동법에 명시된 학생의 노동권에 대해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5단계에서는 학생의 Co-op을 평가를 위해 이수계획서 달성여부, 학생보고서, 실습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공 자문교수에 의해 학점이 부여된다. 학생은 실습 시작과 동시에 전공 자문교수에게 실습을 통한 자신의 성취목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Co-op 이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실습기관에서도 감독관에 의해 중간 및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 자문교수에게 직접 전달된다. 평가는 학생이 작성한 이수계획서와 실습 중간·최종보고서, 실습기관이 작성한 실습 중간·최종보고서, 전공 자문교수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교수에 의해서 Satisfactory(S)/ Unsatisfactory(U)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CWU는 Co-op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o-op 참가학생에 대한 자격 제한은 Co-op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엄격히 이

루어진다. 또한 누적평점과 이수학점을 Co-op의 학생자격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Co-op 참가에 따른 전공 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학생이 학교에서 최소한의 전공 소양을 갖추므로서, Co-op 수행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CWU에서는 Co-op 참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평가가 전공 자문교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공 자문교수제도는 학과의 교수가 가진 풍부한 전문 지식과 산업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op 참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습기관에서의 Co-op 수행 이전 단계부터 전공 자문교수와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습기관을 탐색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Co-op 프로그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되어진 실무 능력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WU는 학생의 Co-op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학생과 실습기관 간의 계약 체결 시, 실습기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은 실습기관 계약에 있어 임금, 근로기준, 복지기준, 실습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학생은 Career Service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Career Service에서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학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실습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Co-op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가학생은 등록금 납부를 통해 CWU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각종 보험계약 및 학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4. 센트럴위싱턴대학의 장기현장실습 실태 분석

CWU 학생 중 매년 700~800여명이 Co-op 프

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CWU Career Service는 Co-op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별, 전공, 학년, 실습지역, 실습분야, 취업제의 여부, 임금 등의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학년도 봄, 여름, 겨울 학기의 1년 동안의 Co-op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86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3).

2014학년도 CWU의 Co-op 참가 학생 총 863명 가운데, 여학생이 전체의 55.7%인 481명, 남학생이 44.3%인 382명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학생이 전체의 72.4%인 6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3학년 학생이 139명으로 16.1%, 학사이상의 학생³⁾이 83명으로 9.6%를 차지하였으며,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 학생은 16명으로 1.9%에 지나지 않았다. CWU의 Co-op 프로그램은 전 학년에서의 참가가 가능하나, 학생의 전공

이해도가 높아 보다 뛰어난 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4학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Co-op 수행 경험을 살려 취업과 연계하고자 한다.

전공계열별로는 사범계열이 450명으로 가장 높은 52.1%로 나타났으며, 이공계열이 190명으로 22.0%, 인문사회계열이 181명으로 21.0%, 경영계열이 42명으로 가장 낮은 4.9%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Co-op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op을 수행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CWU가 위치하고 있는 키티타스 카운티(Kittitas County)와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에서 높게 나타난다. 키티타스 카운티를 제외한 워싱턴 주에 입지한 실습기관에서 Co-op을 수행하는 학생은 전체의 52.9%인 456명으로 가장 많으며, 키티타스 카

표 3. CWU Co-op 참가 학생 현황

구 분		학생 수(명)	비율(%)
성별	남	382	44.3
	여	481	55.7
학년	1학년	4	0.4
	2학년	12	1.5
	3학년	139	16.1
	4학년	625	72.4
	학사 이상	83	9.6
전공계열	이공계열	190	22.0
	인문사회계열	181	21.0
	사범계열	450	52.1
	경영계열	42	4.9
실습지역	키티타스 카운티	338	39.2
	워싱턴 주 (키티타스 카운티 제외)	456	52.9
	미국 내 (워싱턴 주 제외)	55	6.4
	미국 외	14	1.6
실습직무	사무관리직	151	17.5
	영업직	156	18.1
	서비스직	396	45.9
	생산직	101	11.7
	교육직	59	6.8
합 계		863	100.0

자료: CWU Career Service 내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분석한 결과임

운티는 39.2%인 338명이었다. 워싱턴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으로 55명(6.4%), 해외 현장실습이 14명(1.6%)으로 각각 나타났다. CWU에 재학 중인 학생은 92%가 워싱턴 주 출신이며(<http://www.cwu.edu/about/quick-facts>), 대부분의 학생이 지역 내 범위에서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습학생이 실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거, 교통, 심리적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민간 기관들이 Co-op의 참여와 지원에 있어서 호혜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의 전공, 실습기관,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CWU에서 Co-op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다. 전체 863명의 학생 중 80%에 해당하는 688명의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습기관에서 Co-op을 수행하였다. CWU Co-op 참가학생이 수행한 실습 직주는 서비스직이 396명(45.9%), 영업직이 156명(18.1%), 사무관리직이 151명(17.5%), 생산직이 101명(11.7%), 교육직이 59명(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극도의 전문성을 수행하는 일보다는 서비스직 혹은 사무관리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습은 업무의 내용과 실습기관의 문화적 환경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같은 실습기관에서 여러 번 Co-op을 실습하는 학생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CWU Co-op 프로그램은 유급과정으로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임금을 받으며, 학생의 학력과 전공, Co-op 참여 경험에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CWU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임금은 실습기관과의 계약 시 협의에 의해서 임금지급시기, 급여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CWU Co-op 참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시급 14.5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대학의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실습기관은 Co-op의 목적을 정규직 채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습기관들은 Co-op을 통해 조직의 문화와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자 한다. 미국 내 대

학의 전체 Co-op 참가자들 중 약 37.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Co-op 참여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2015).

CWU의 경우, 2014학년도 Co-op 참가 학생 가운데, 봄과 여름학기에 Co-op에 참가한 학생들이 Co-op 수행 후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은 취업 제의를 살펴보면, 414명의 학생 중 취업제의를 받은 학생은 98명으로 23.7%를 차지하였다. 특히 취업제의를 받은 학생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사범계열이 33명, 이공계열이 28명, 인문사회계열이 27명, 경영계열이 10명으로,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경영계열의 학생들이 Co-op 참가 비율에 비해 많은 취업 제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취업제의를 한 실습기관의 분포는 키티타스 카운티를 제외한 워싱턴 주가 48개(49.0%), 키티타스 카운티가 41개(41.8%), 워싱턴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9개(9.2%)로 나타나, 워싱턴 주에 있는 실습기관으로부터의 취업제의가 90.8%에 이른다. CWU의 Co-op 프로그램은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방지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CWU의 학생들은 Co-op을 통해 전공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서 수행해봄으로써 업무수행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의 계발, 자신감의 증대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실습기관의 경우에도 Co-op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비용의 절감, 단기프로젝트의 효율성 증대, 잠재적인 정규직의 교육 등의 이점이 있다. 이는 CWU의 Co-op 프로그램의 실습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상호 니즈가 충족된 적절한 매칭에 따른 효과라 볼 수 있다. CWU는 효율적인 Co-op을 위해 실습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Co-op 참가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게 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장기현장실습은 학생-기업-대학에게 최근의 빠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체에서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업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학과 산업현장 간의 미스 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 제고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외국 대학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춘 프로그램 및 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대학과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센트럴워싱턴대학을 사례로 장기현장실습, 즉 Co-op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op 참여 학생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습생의 현장실습 적응력 및 실습기관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실습을 통해 실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기간 및 학점 부여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전공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현장실습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장실습의 시행절차와 평가과정이 비교적 엄격하고, 전공 자문교수에 의해 다양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의 경력이 기업으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열 중심의 현장실습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반해 CWU의 경우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CWU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이 입지한 키티타스 카운티를 포함하여 워싱턴 주 내에 위치한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장실습기관으로서 대학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한 관공서 및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거주지 및 학교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지역의 민관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호의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관공서를 비롯한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장실습생들은 노동법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이 정부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실습생의 권리 및 임금 등에 대해 명시된 법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

- 1)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에 있다(교육부, 2015)
- 2)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3) 학사 이상의 과정에는 학사 후 학점인정과정(Post Baccalaureate)과 석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 수치이다.

문헌

교육부, 2015,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청회 개최, 2015년 7월 15일 보도자료.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2013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김우승 외,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김영규, 2008, 해외인턴십을 활용한 지방 4년제 대학 여성인력의 취업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22(4), 327-338.
- 윤명희·김진화·김현희·박성실, 2006, 대학의 산학협동 인턴십 프로그램 평가, *직업교육연구*, 25(3), 183-206.
- 최순식, 2015, 현장실습 운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지역 A대학교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건설리뷰*, 6(1), 151-175
- 황의택, 2015, 장기현장실습제도를 통한 인력채용 효과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Callanan, G., & Benzing, C., 2004, Assessing the role of internships in the career-oriented employment of graduat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 and Training*, 46(2), 82-89.
-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2014, *Co-op Handbook*.
- Collins Dictionaries, 2014, *Collins English Ditionary*.
- Gault, J., Leach, E., & Duey, M., 2010, Effects of business internships on job marketability: the employers' persp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52(1), 76-88.
- Gault, J., Redington, J., & Schlager, T., 2000, Undergraduate business internships and career success: are they related?,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2(1), 45-53.
- Knouse, S. B., Tanner, J. R., & Harris, E. W., 1999, The relation of college internships, college performance, and subsequent job opportunity,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6(1), 35.
-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2015, *Internship & Co-op Survey*.
<http://www.cwu.edu/about/quick-facts>
<http://www.cwu.edu/career/students>
[http://www.cwu.edu/resources-reports/cwur-2-5-0-060-curriculum-rules-implementation#\(2\)](http://www.cwu.edu/resources-reports/cwur-2-5-0-060-curriculum-rules-implementation#(2))
<https://www.naceweb.org/knowledge/glossary.aspx>
<http://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2015/03/31/understand-the-differences-between-a-Co-op-internship>(US News & World Report 2015년 3월 31일 기사)
- 교신 : 장후은,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이메일: jhe@gnu.ac.kr, 전화: 055-772-2690)
- Correspondence : JANG Hoo-Eun, 52828,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E-mail: jhe@gnu.ac.kr, phone: +82-55-772-2690)
- (접수: 2015.10.26, 수정: 2015.11.15, 채택: 2015.11.18)